

로컬뉴스



익산 모현동 맞춤형 복지팀 본격 활동

익산시 모현동 주민센터 맞춤형 복지팀이 복지허브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이웃을 찾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6월 15일에 발족한 모현동 맞춤형 복지팀은 기존의 복지업무 형태를 벗어나 직접 현장에 나가 어려운 이웃을 찾는 복지기동대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맞춤형 복지팀과 사제관 리사, 보건소 가정방문간호사들이 함께 요곡경로당을 찾아 맞춤형 복지사업에 대한 설명을 했다.

/익산=정영원기자

군산 시립예술단 공연 만족도 조사

군산시는 시민 및 시립예술단 공연 관람객을 대상으로 공연 전반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오는 28일까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시립교향악단·합창단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18일 정기공연과 25일 브라보 콘서트 전 공연 관람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공간과 고객 지향적 공연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람 동기, 만족도 등 10개 항목을 조사한다.

/군산=문정근기자

익산시 중앙지구대 민경합동 순찰 각종범죄사건 예방 기여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에서는, 지난 1일 오후 8시부터 2시간에 걸쳐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여성범죄예방 차안활동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민경합동 순찰을 실시하고 생활지인에 다가감으로써 주민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받고 있다.

이날 합동순찰은 김음대 중앙지구대장을 포함, 익산경찰서 소속 시민경찰학교 2기 강철희 등 15명과 함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비롯하여 관내 휴가철 빈발하는 빈집털이와 폭력사건의 예방을 위해 남중동 주택가, 원림길집자역을 중심으로 가시적 위력순찰 및 홍보활동 등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도 향상과 각종범죄사건의 예방은 물론 주민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했다.

/군산=문정근기자

선유도 스카이썬라인 사고발생

공중추돌... 안전요원 '도착지 도착 후 출발' 안전수칙 안지켜

군산 선유도해수욕장에 설치한 '선유 스카이썬라인'을 타던 관광객들이 서로 부딪혀 4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용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지난 1일 오후 4시 42분께 군산시 선유도에서 바다를 가로지르는 공중하강체험 놀이기구인 '스카이썬라인'을 이용하던 관광객들이 공중에서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스카이썬라인을 타던 이모(여·33)씨가 중상을 입었고 정모(여·51)씨 등 3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후송됐다.

이날 사고는 스카이썬라인을 타고 먼저 출발한 이씨 등 2명이 도착지에 도달하기 전 뒤이어 출발시킨 정씨 등 2명이 따라붙으면서 발생했다. 사고가 난 스카이썬라인은 선유도해수욕장에서 바다를 가로질러 총 길이 700m 길이의 바다를 횡단하는 공중하강체험시설로, 스카이라인의 하강속도는 시속 50km의 빠른 속도로

도착지에 도달하기까지 대략 1분 30초 정도 소요된다.

스카이썬라인은 주중 200명, 주말 500여명의 관광객이 이용하면서 선유도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이날 사고는 해당 업체에서 수직을 늘리기 위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관광객을 수용해 발생,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사고로 드러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안전요원이 모니터를 확인하고 무선통신을 통해 이용객이 도착지점까지 무사히 도착한 것을 보고 다음 이용객을 내려 보내야 하는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는 관광객이 집중되는 오후 시간대에 더 많은 관광객을 태우기 위해 '도착지 도착 후 출발'이라는 안전수칙을 무시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더욱이 해당 업체는 운영미숙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사고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복구 조치를 완료하고 군산시의 승인을 받아 운행해야 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사고가 발생한 다음날도 운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시 관계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광객이 집중되는 시간으로 무더위에 지친 운영요원들의 집중력이 떨어져 발생한 사고"라고 밝혔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하강체험시간이 당초 50초에서 2분 사이였으나 사고 발생 후 체험시간을 3분~4분으로 늘려 운행하고 있다"면서 "안전요원도 당초 8명에서 12명으로 늘려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바다에 있는 섬과 섬을 연결해 바다를 횡단하는 공중하강체험시설인 썬라인은 군산시가 4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선유도 해수욕장과 '선유팔경(仙遊八景)' 중 하나인 망주봉 앞 솔섬까지 700m구간을 연결했다.

/군산=문정근기자



군산시, '안전하고 즐거운 하룻길 만들기 사업' 길 바닥에 새겨진 따뜻한 메시지

군산시는 심야시간 여고생들의 안전한 하교를 위해 밤이 되면 길 위에 학생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내는 메시지가 나타나는 그림자 광고시스템을 설치했다.

시는 '안전하고 즐거운 하룻길 만들기 사업'으로 군산여고, 영광여고 중앙여고 통학로 인근 가로등에 송출기를 설치해 '우리 딸 오늘도 수고 많았어 사랑해', '고개 들면 보일거야 반짝반짝 너의 별', '항상 너의 편이 되어 줄게 너 혼자 아니야'라는 격려 메시지를 학생들에게 전한다.

점목된 이 메시지는 늦은 밤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하교하는 학생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빛을 이용한 시각적 즐거움을 주는 메시지를 도로상에 표현함으로써 사람들의 관심을 유발해 자연스럽게 야간 범죄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격려가 되고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골목길을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음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근기자

군산시, 선유스카이썬라인 강력한 안전조치로 재발방지에 총력

지난 1일 발생한 선유도 스카이썬라인 인명사고와 관련, 군산시는 신속한 수습과 함께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특별 행정조치와 위탁업체에 안전 보장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위탁업체에 △탑승인원 조정(당초 1일 1라인 최대 325회를 1일 1라인 200회로 변경), △출발대 선탐 대기시간을 2분에서 3분 이상으로 조절, △운영요원 교육 철저, △도착대 깃발을 흰색, 빨간색 등으로 표시하여

출발대와의 수신호 체계 보강 △하절기 영업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전 9시로 변경 등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상 보장 조치를 주문했다.

군산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어떠한 안전사고라도 원인을 철저히 조사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전문가 자문 및 보완조치를 실시하여 안전한 군산, 신뢰받는 군산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군산=문정근기자

금강철새조망대 생태 체험프로그램 인기

군산 금강철새조망대가 여름방학을 맞아 준비한 생태체험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유아·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공복절 하루 2회씩 철새조망대 생태체험학습관에서 무료로 진행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석한 학부모와 어린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높은 사전 예약률은 물론 당일 조망대를 방문한 관람객의 참여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 프로그램은 새와 관련한 다양한 원리를 알아보고 실험해보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새를 비롯한 양서류·갑각류 생물들을 직접 만져보고 탐구해 볼 수 있게 꾸며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가족 참여형으로 진행되고 있다.

/군산=문정근기자

익산시 인구늘리기 사업 가시적 성과

정현을 익산시장 지난 6월부터 인구증대 추진계획·60개 추진과제 추진

정현을 익산시장 취임 후부터 인구 늘리기에 박차를 가한 결과 익산시 인구늘리기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현을 시장은 지난 6월부터 익산시 인구증대 추진계획을 세우고 60개의 추진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1억원 1명 이상 실거주 미전입자 전 입운동 추진 등 인구증대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들어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익산시 인구는 지난 6월말 30만1,048명에서 7월말 30만3,340명으로 222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2년 동안 매달 평균 180명 정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구 증가는 그동안 정시장의 사활을 건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정 시장은 "앞으로도 추진과제를 점검하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는 등 인구증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 하겠

다"며 "인구증가는 행정의 노력만으로 추진에 한계가 있어 익산시민 모두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익산시는 이달 중 인구증대 범 시민운동 전개를 위해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다.

인구의 중요성과 앞으로 추진방향 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익산=정영원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Seeseri Clean UP

문제는 싱크대다

Why? "씨서라"를 사용해야 하는가

- 싱크대 배수통의 오랜 찌든때와 막힘
- 스물~스물 올라오는 음식물과 불쾌한 냄새
- 오래 사용한 싱크대 배수구를 속속 하고 싶다면
- 믿을수 있는 국산, 특허 제품
-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설치, 사용 가능

(주) 코포스

청결한 주방문화를 창조하는 기업

각 지역 총판 및 딜러모집 (여성에게 유리한 사업입니다.)

광고 게재기간동안 공동구매시 설치비 30%할인 행사합니다.

코포스에서는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새로운 형태의 창업"을 제안합니다.

홈페이지 www.seeseri.com / www.씨서리.com을 방문하시면 상품정보, 각종동영상, 자세한 자료, 사업의 비전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 이병기 010-5628-1256. see8709@naver.com

"씨서라" 실제 설치!

청소액 [학스]

씨서리가 배수통을 청소해줍니다!

우리의 힘이 비껴나기 싫어하고 위생에 지부심이 있으시면

식용색 사료 알약에서 제형 되었어요!